

주간 증시 포커스

美 국제금리 상승에 하락세

글로벌 증시 변동성 장세 지속

철강 등 낙폭과대주 우선 매수

미국 국제금리 상승이 전세계 증시를 강타한 가운데 국내 코스피지수가 일주일만에 161.6P(6.3%) 하락해 2363포인트로 떨어졌다.

한주간 미국 3대지수 모두 5% 넘게 하락한 미국 발 충격으로 프랑스 5.3%, 독일 5.3%, 일본니케이 225지수 8.1%, 중국상해 9.6% 등 글로벌 주요국 증시가 동반 하락했다.

이번 증시 폭락 등 급격한 변동성을 초래한 것은 지난 2일, 미국 1월 고용지표가 시장의 예상보다 좋게 발표되자 미국의 임금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였다.

지난해 말 2.41%였던 미국 10년물 국제금리는 지난 2일 2.84%까지 상승했는데 실질금리의 가파른 상승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예상보다 빨리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기업과 가계가 유동성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금융시장에 친화적인 '비둘기파' 앨런의장이 퇴임하고 자기주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제롬 파월 신임 연준 의장이 임기를 시작하는 교체시기라는 점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롬 파월 의장이 처음 진행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3월에 열리게 되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금융규제완화 등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때까지는 시장 변동성이 이어질 수도 있다.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우선, 현시점에서 추격매도는 실익이 크지 않고 향후 대응방안이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미국의 금융위기와 차이점을 찾아보면 미국국제금리 상승에서 출발했는데 지난주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매우 컸지만 주식시장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폭은 제한적이었다.

미국 10년물 국제금리는 2월 2일 연 2.84%였는데 9일 2.86%로 마감했다.

월·달러 환율도 지난 5일 1090원에 시작했는데 9일 1092.10원에 마감했다. 따라서 향후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해진다면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장기적인 조정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높은 변동성을 활용해 금융, 철강 기계업종의 낙폭과대주에 대해 저점매수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 좋아 보인다.



정계두

〈유니투자증권 광주지점장 이사대우〉

청년창업농 인기... 1200명 모집에 전남 536명 신청

3월 최종 선발 ... 월 최대 100만원 최장 3년간 지원

광주·전북·경남서 스마트팜 교육 ... 전문인력 육성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는 청년창업의 열기가 '농업'으로도 빠르게 번지고 있다. 정부의 영농정책지원 사업에 귀농을 꿈꾸는 전남지역 청년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스마트팜 장기 보육 프로그램도 광주에서 실시될 예정이어서 지역 예비 청년창업농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목)는 11일 오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책지원사업'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국에서 총 3326명의 청년들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책지원사업은 영농의지와 발전가능성이 큰 청년창업농 1200명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역별 신청 인원을 살펴본 결과 전남지역 청년

들은 536명(16.1%)이 신청하면서 경북 602명(18.1%)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신청인원이 많았다.

이어 전북 478명(14.4%), 경남 376명(11.3%), 경기 347명(10.4%), 충남 308명(9.3%), 강원 227명(6.8%), 제주 88명(2.6%)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산·대구·광주 등 특·광역시에서도 146명(4.4%)이 신청했다.

도시에서 귀농하거나 귀농예정인 청년이 2376명(71.4%)으로, 재촌 청년 950명(28.6%)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귀농해 농업분야 창업을 계획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역 청년들의 영농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청년을 위한 제기 스마트팜 장기 보

육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첨단기술 교육이 가능한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을 비롯해 전북 농식품인력개발원, 경남 농업기술원 등 3곳에서 실시된다.

오는 16일까지 교육생 60명을 모집하며 만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의 청년이 대상이다. 전공에 관계없이 창업농 희망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스마트팜에 종사하는 전문인력 부족 문제와 기존의 단기성 스마트팜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교육이다. 기초부터 경영실습까지 최대 1년 8개월을 교육하며, 내년 이후 매년 100명 이상으로 확대 선발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오는 4월2일부터 교육에 들어가고, 입문교육, 교육형 실습교육, 경영형 실습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스마트팜 실습농장에서 자기책임 하에 1년간 경영실습도 할 수 있고, 현장실습과 경영실습과정에는 스마트팜 전문 컨설턴트의 현장지도도 받으며

영농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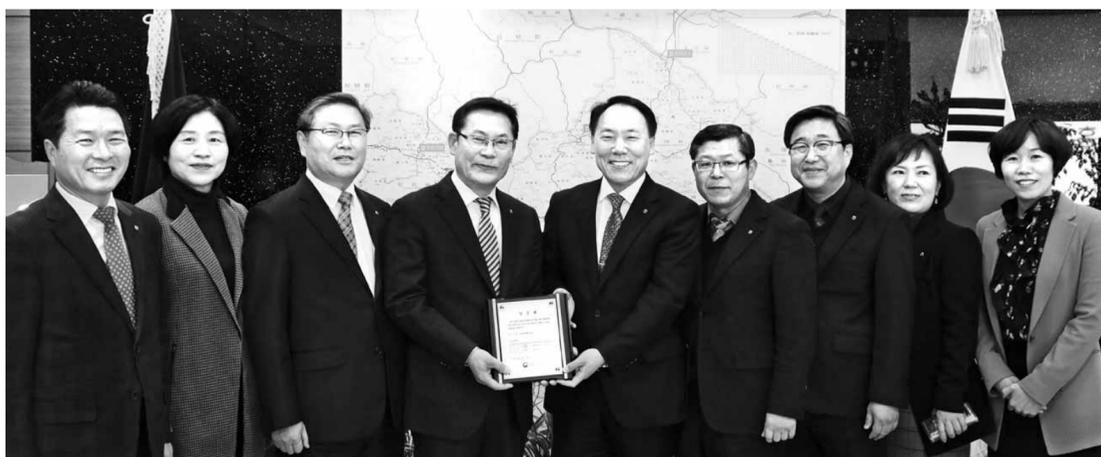
교육비도 전액 무료로, 교육생의 자격 요건에 따라 농업법인 취업알선과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책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교육과정을 수료한 창업농은 스마트팜 종합자금 및 농산보 우대 지원,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비축농지 장기임대 우선 지원 등 혜택도 주어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팜 보육사업을 통한 체계화된 교육과 현장실습 및 경영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스마트팜을 이끌어 갈 전문인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농업인의 농업분야 유입확대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의나 자세한 정보는 전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전화(062-530-4275~6) 또는 포털사이트 스마트팜 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지역 농·축협 최초로 펀드판매 인가를 취득한 순천농협에서 인증식을 마친 뒤 박태선(왼쪽 다섯번째) 본부장과 강성태(왼쪽 네번째) 조합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순천농협, 전남지역 농·축협 최초 펀드판매 개시

순천농협이 전남지역 농·축협 최초로 펀드판매를 개시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1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펀드판매 인가를 취득한 순천농협(조합장 강성태)이 펀드판매를 개시, 전남지역 농·축협 최초 펀드판매 1호점 인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농협은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맞아 금융소외지역 농업인 등 지역민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고객의 자산형성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농·축협을 통한 펀드판매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펀드판매 개시로 순천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는 펀드상품은 MMF, 채권형 및 채권혼합형이다. 불완전판매 예방 등 금융소비자 자산 보호를

강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상품을 중심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강성태 조합장은 "전남지역 농·축협 중에서 펀드판매를 선도적으로 시작해 기대가 큰 만큼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조합원과 고객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해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선 본부장은 "이번 펀드판매는 농업인의 농가소득 증대와 고객에게 다양한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금융서비스를 한층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며 "펀드판매 농·축협을 확대해 올해 2호점, 3호점을 추가로 더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률 높았다

광주·전남 291명 가입 1.5배 ↑

농촌지역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지역민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윤석균)에 따르면 지난해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촌지역 거주민은 전국 1848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도 지난해 291명이 신규로 가입하면서 전년도에 비해 1.5배나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농지연금은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으면서 가입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농지연금의 지급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생활환경에 맞는 선택이 가능했다는 점도 가입증가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농지연금에 대한 문의는 전화(1577-7770) 또는 농지연금 포털(www.fplov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설명절 축산농가·철새도래지 방문하지 마세요"

농식품부, AI·구제역 방지 캠페인

설 명절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가급적 축산농장과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지 않는 게 좋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설 명절 기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전국 일제소독 캠페인과 가축방역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귀성객과 여행객의 이동이 많은 대중교통시설의 전광판에 홍보문자를 내보내고, 고속도로 진·출입로, 마을 입구 등에 홍보용 현수막을 설치할 계획이다.

국제 공·항만에서는 AI·구제역 발생국가와 해

의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입국시 신고와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축산농가에는 SMS 문자와 마을방송 등을 통해 설 연휴 기간 중 외부인의 농장출입을 막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오는 12일과 19일에는 소독장비를 총동원해 전국적으로 일제 청소·소독도 실시된다.

청소와 소독은 전국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 축산시설 출입차량뿐만 아니라 철새도래지, 소규모 농가, 전통시장 등 방역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로 구성된 정부합동점검반은 실제점검을 진행한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Step 1. 방수정리
Step 2. 단열반의스카프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린답니다! 20년을 가는데!!

1/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2/ 건축 내외장제 패던디자인이나 잔 엔디나의 클라보 디자인!
3/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4/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1097764호
특허 제10-0548189호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울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